

미니와 미니친구들과함께 데이트하고 저녁먹고 흥대가서 마지막 달리는중에 혼나게 됐다.
그리고 전주도 가서 미니와 나는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은 대화도 나눴다. 그런 시간들 사이에
느꼈던 감정들과 생각으로 정리를 하면 서 서로 떨어져있는 시간에 카톡으로 긴 대화를 나누
게됐다.

미니의 말 중에는 고맙다고 나에게서 진정한 존중이라는 것을 처음 받아보는느낌이라 그랬
다~~~ 항상 설레고 궁금하다 했다.

나의 말중에는 그 때도 나에게도! 기대졌으면 하는 마음이 컸던모양이다. 이 대화의 시작점은
내가 낙원스낵을 지나치며 가볼까 했다가 미니가 남의 돈이라고 ~~~ 했던것이 미니는 많이
걸렸나 보다 그래서 시작됐던 대화였다. 근데 정말 행복한대화로 결과가 나와서 좋았다.

미니와 내가 전주 청년몰에서 만든 악세서리가 내것이 고리가 빠져서 그거로도 특을 나눴다.
미니가 영화를 보러가자고 했다. 깻아웃 (5월 26일에나 봤다.) 가오깁 언노운 걸 얘기나오고
가오깁에 로켓을 찾고 엄청 귀여워한다. 가오깁1을 5월 29일에 보고는 로켓을 역시나 귀여워
했다. 윤관이형이 보내준 면도기를 보게된날이었다. 고맙게 잘쓰고있다.미니가 타임패러독스
봤다는 얘기를 기억해줬는지 에단호크를 들고와서 나보고 닮았다고그랬다 ㅋㅋㅋㅋ 처음으로
음성메시지로 날 간지럽혔다. 인형만들자는 얘기를해서 검색해서 골랐따.5월 30일이 되어서야
손에 넣었다. 언제 만들까 궁금하다.

Human & Memory Archives

그리고 방울토마토 8일에 씨앗을 심었던 것이 처음 싹난 것을 본 날이다.